

## 夏節에 流行하는 泄瀉

原 因·症 狀·治 療·豫 防·診 斷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 수 오 현 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口腔 및 胃에서 어느정도의 消化過程을 거쳐 小腸으로 내려가며 여러 消化酵素의 작용으로 다시 소화되어 下部로 輸送되는 동안에 有用한 영양소는 흡수되고 나머지만이 大腸으로 내려가 1~2일간 大腸內에 정체되어 있는동안에 水分이 완전히 흡수되고 정상적인 대변이 排出되는것이다.

어떤 원인으로 胃腸의 輸送運動에 蹉跎이 일어나서 너무 급속하게 배출되는 경우 혹은 대장 내에서의 수분흡수가 잘 되지 못하는 경우에 설사를 이끄는것이다.

우리의 各臟器의 기능은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으므로 다른 臟器疾患의 영향으로 설사를 이끄는 예도 있지만 설사의 주요한 원인은 消化管疾患인 것은 재언할 나위도 없

다. 설사를 이끄는 질환중 夏節에 많이 유행하는 몇가지를 택하여 그 대략을 설명하려고한다.

여름철이되면 거리에는 구미를 자극하는 여러가지 새로운 과일 및 음료등 거리에 범람하게되며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위생시설이 완비되지못한 지역에서는 식료품이 오염 변질되기 쉬우며 또 각개인은 무더움을 피하여 강으로 바다로 혹은 산으로가서 자연적으로 과일과식하기 쉬우며 또는 오염변질된 식품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 <살모네라菌病>

소위 食品中毒症이라고 불리우는 질병의 대부분은 살모네라균 감염에 인한것이며 여름철의 대표적 소화기전염병이다. 종래에는 부패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질

병이라고 믿었지만 중독을 일으킬만큼 부패한 식품은 냄새가 고약함으로 먹을 수 없을 것이고 또 부패하지 않은 식품을 먹고도 중독증상을 일으키는 예도 적지않다. 그러므로 실제로 식품중독증은 식품부패에 기인하는 경우는 극히 적을 것이며 대개는 살모넬라균으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살모넬라균은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 약 70종에 달하고 있지만 그중 장지부스, 파라지부스균을 제외하면 병원성인 것은 Gärtner 氏腸炎菌이 주요한 것이다. 여기서는 장지부스 및 파라지부스를 제외하고 그외의 살모넬라균병에 대하여 그 대략을記한다.

◇潛狀期; 장지부스는 감염으로부터 발병까지가 일주일 전후라고 하지만 그외의 살모넬라菌에서는 이 잠복기가 3~10시간이며 길어도 2~3일 간이다.

◇症 狀; 발병하는 모양이 대단히 급격하다. 처음 구역, 복통, 설사, 구토등으로 시작하며 대변은 처음에는 단순한 설사편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로 粘液 또는 血液이 섞여서 외관상 痢疾便에 흡사하게 된다. 便通數도 1일에 10~20회에 달하게 되고 重症에서는 고열이 나고 때로는 심장쇠약으로 인하여 Cyanosis, 頻脈을 보게되고 신경증상으로 심한 두통, 四肢痛, 의심

흔락을 이르는 예도 있다.

특수한 예로서 임상조건이 眞性코레라에 흡사하여 吐瀉의 모양 및 배설물의 性狀은 眞性코레라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처음에 상승하였던 체온은 정상이하로 내려가며 극도로 脫水가 심하고 심한 근육통 경련을 일으키며 순환장애로 사망하게 된다. 이것이 歐洲코레라 혹은 霍亂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며 眞性코레라와 다른 것은 배설물에 코레라균이 결여한 것이다.

◇經 過; 대개는 2~3일 후에는 泄瀉는 멎으며 체온도 정상으로 하강하여 치유되지만 重症 특히 歐洲코레라 같은 예에서는 循環障礙로 사망하는 예도 있다.

◇診 斷; 확실한 진단은 의심이 가는 식품 및 환자의 배설물 혹은 혈액중에서 해당 균을 검출함으로써 확립된다. 이와 유사한 병으로서 痢疾을 들수있다. 대변에서 해당 균을 검출함으로써 감별하는 것이지만 痢疾便에는 점액과 혈액이 더 많이 보이며 便通回數는 많으나 1회에 배설하는 양이 극히 적으며 심한 後重症과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점이 다르다.

◇豫防策; 환자 및 보균자의 배설물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질환임으로 이 병을 예방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공중위생시설 완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관상 건강한 사람중에 상당수의 보균자가

있다고 하며 체외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사실, 각종 가축간에도 이 병이 유행한다는 사실 등은 本症 예방을 일층 곤란하게 한다.

◇治 療: 첫째로 환자를 안정취 침시키고 복부를 따뜻하게 한다. 식사는 유동 혹은 반유동식으로 제한하며 토사가 호전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보통식사에 移行한다. 다음 크로칼페니콜 또는 테트라사이클린은 증세에 따라서 적당한 양을 투여하여 균증식을 억제한다. 輕症은 이러한 항생물질을 투여하지 않아도 자연치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重症에서는 심한 토사로 인하여 脫水症; 電解質不均衡, 循環障礙, 神經症狀을 보게 되는데 이런 예에서는 포도당액, 생리식염수 등의 非經口的投與가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葡萄狀球菌毒素에 기인하는 식중독>

포도상구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후 대개 2~4시간 후에 발병한다. 처음 타액이 많아지며 구역, 토사, 복통을 일으키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최약감, 筋肉痛 및 四肢痛, 두통을 호소하며 발한이 심하다. 이와같이 증상이 살모넬라균병에 흡사하나 대개는 5~6시간을 지나면 경쾌해지며 사망하는 예는 별로 없다.

輕症에는 특별한 치료는 필요치 않고 重症에 한하여 對症療法을 한다.

원래 포도상구균은 자연계에 무수하게 있으며 건강한 사람의 비강, 인후대에 발견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식품을 완전히 이균으로 오염되는 것을 면하게 하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균으로 식품이 오염되더라도 외관은 변함이 없으며 맛도 별다른 점이 없어 감식이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질병을 예방하기란 극히 힘든 일 일 것이다.

#### <細菌性病疾>

本症은 유행성 혹은 散發性으로 나타나며 대장에 심한 潰瘍性炎症을 발생시켜서 심한 설사와 복통을 수반하는 질환이다. 이질균(적리균)은 대장내에서 증식하여 환자의 대변중에 무수하게 배출되는 것이며 이런 오물에 오염된 식품, 음료등을 섭취함으로써 전염되는 것이다. 또한 임상적으로 치유된 자의 대변중에 지속적으로 균을 배출하는 소위 보균자도 있으므로 급성기에 있는 환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보균자도 전염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열대 및 아열대지방에 많으며 여름철과 이른가을에 유행한다.

◇症狀 및 經過: 잠복기는 2~7일 정도이며 처음에는 단순한 위장염 같은 증상으로 시작하여 설사, 식욕 감퇴, 복부불쾌감을 호소한다.

다음 분종의 특징인 血便, 粘液便을 보게되며 便通數는 점차 1일 15

~20회에 달하게되며 때를 같이하여 심한 後重症을 수반한다. 발병 후 1~2일지나면 대변은 혈액이 많이 섞여서 외관상 혈액같은 빛을 보이게되는 예가 있는가하면 때로는 점액이 많이 섞여서 외관이 백색으로 보이는 예도 있다. 전자를 赤痢라하고 후자를 白痢라고 호칭한다.

便通數가 20~60회에 달하여 심한 예에서는 환자는 변기를 그냥대고 있어야할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회수는 많아져도 1회에 배출되는량은 극히적다. 심한 예에서는 왕왕 腕肛을 초래하는 예도 있으며 때로는 肛門括約筋이 마비되어 항문은 개방되어 직장 내용물이 끊임없이 유출하게된다. 便通직전에 주로 하복부 때로는 복부 전반에 통증을 호소하며 대변배설후에는 다소 완화된다. 체온은 불규칙하여 미온 혹은 고열에 달하는 예도 있으며 소수 예에서는 정상이하의 체온을 보여준다. 本症에서는 상기한바와 같이 局所症狀이 심한데 비하여 全身症狀은 비교적 양호하나 重症에서는 균이 생성하는 독소로 인하여 일반상태가 악화하여 심한 쇠약을 가져오게 된다.

1~2주일지나면 대다수는 치유되는것이지만 소수 예에서는 만성증으로 이행하여서 부주의한 식사 혹은 감기등에 의하여 재발을 반복한다.

◇豫防策;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전염 원인은 환자의 대변임으로 환자는 물론이고 유행기에서는 凝似症이라도 격리를 요하며 동시에 배설물을 세심하게 소독해야하며 환자가 사용한 식기 의류등도 적당히 처리하여 전염원천을 없애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음식물이 파리의 매개로 오염되는 예가 많으므로 이를 驅除함이 필요하다. 각개인은 유행기에는 과음과식을 삼가며 가능하면 식품은 끓여먹는것이 안전할 것이다.

예방주사는 그효과는 인정되지만 부작용이 심함으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상태이나 예방내복약의 복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게되었다.

◇診 斷; 定型의인 예에서는 임상소견 및 대변의 肉眼的소견으로 대체적인 진단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진단은 대변의 세균학적인 검사로 병원균을 확인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아메바性痢疾은 그 臨床狀이 세균성이질과 흡사함으로 양자의 감별도 대변에서 각각 해당병원체를 확인함으로써만 가능하다.

◇治療法; 1) 일반요법...세실한 간호가 절대필요하다. 급성기에는 중증은 물론이고 비록 경증이라도 취침안정케하며 복부의 보온에 노력하고 되도록 침구 의류등의 오염이 없도록하며 파리의 내습을 피하게 하여 他에 오염함이 없도록함이 필요한것은 말할나위도 없다. 식사는 현이 정상으로 될때까지 유동 혹은

반유동식에 한한다. 즉 밀, 죽, 스프, 제란, 우유등을 환자의 구미에 맞도록 적당히 혼합 조리하여 먹이며 병세가 호전함에 따라서 차차 정상식으로 移行한다.

일반적으로 냉한 음식물은 장의 운동을 조장하여 설사를 더욱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든 음식물은 따뜻하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증증환자에 있어서는 심한 구토 설사로 인하여 전신탈수를 일으켜서 심한 구갈증을 호소하며 쇠약 불안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데에서는 가능한 한도내에서 과즙 및 차 등 음료를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위기를 면할수 있다.

2) 藥物療法...코르라베니콜, 테라마이신등 항생물질이 세균성이질에 유효한것을 알게되었다. 年齡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서 용량을 가감하여 되도록 초기부터 투여하며 정상변으로 된후에도 減量하여서 2~3일간 지속 투여한다. 다음 위에서도 언급한바 이지만 구토와 설사는 필연적으로 탈수를 가져오게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生理食鹽水, 포도당액등을 非經口的으로 충분히 주어서 노량이 하루에 1000cc 이상을 유지하게 한다.

#### <아메바성痢疾>

本症도 역시 열대, 아열대지방에 유행하는 전염성질환이며 아메바라는 미생물이 대장에 감염하여 潰瘍

性大腸炎을 이르게 세균성이질에 흡사한 臨床狀을 이끈다.

◇症候및經過; 잠복기는 일정하지 아니하며 1~3일 때로는 1~3주이다. 돌발적으로 설사, 복통, 後重症 등으로 시작하며 체온은 정상 또는 미열 정도로 상승하고 1~2일 후부터 대변에 혈액 및 점액을 보게된다. 如斯히 급성기에서는 그 모양이 세균성이질과 별로 다른점이 없으므로 양자를 감별하기가 곤란하다.

然이나 아메바성에 있어서는 급성기가 지나고나서 만성화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되면 아무증상도없이 경과하다가 때때로 급성화하며 如斯한 再燃을 지속함에 따라서 환자의 일반상태는 점차 악화하여 심한 쇠약에 빠지게된다. 다음 아메바성이질에서 특이한것은 20~30%에서 肝臟膿瘍이 병발하는것이라 할것이다. 간장이 비대하여지고 고열이나며 간장 부위에 압통이 있다. 적절한 시기에 외과적 수술을 가하지 아니하면 육자에 있어서는 흉곽내로 혹은 복강내로 파열되어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診 斷; 세균성이질과 상이한 점은 본증은 만성증으로 移行하는 경향이 큰점과 肝臟膿瘍을 병발하는 점등이다. 대변에서 아메바를 확인함으로써 진단이 확정된다.


◇豫防法; 본 질환도 역시 환자의 대변이 감염원천이 됨으로 환자의 배설물 및 환자가 사용하는 외류 기

타 물건을 適宜 消毒하며 각개인은 生食을 삼가야한다.

◇治療法: 일반치로 및 간호와 식 사요법은 세균성이질때와 다를것이 없다.

본증 급성기에는 에메진이 거의 特効적으로 작용한다. 1회에 0.03~0.04g 식 매일 혹은 격일로 筋注하면 2~3일내로 血便이 없어지고 일 반상태도 호전된다. 然이나 불행히 이 약물은 독성이 크기때문에 과중 하게되면 심장쇠약을 일으킨다. 고 로 원칙적으로 의사의 세심한 감시 하에서만 투여 할 것이며 주사전량이 0.2~0.3g에 달할때는 1~2주간 중 지하였다가 필요하면 다시 반복하는 것이 좋다. 급성기가 지나고 임상 적으로는 치유되었다고 보이는 예 에서도 만성화 혹은 재발하는 예가 적지아니하므로 충분한 에메진치로 를 한후에 필히 설화제, 테트라사이 크린 혹은 야드렌등을 수주간 지속 투여한다.

如斯히 아메바성이질은 만성화 또 는 재발하기가 쉬울뿐만 아니라 때 로는 肝臟膿瘍과 같은 무서운 합병 증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급성기에 전문의의 능숙하고 세심한 가료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 하여 請돈다.




보다 새로와진 藥効!

특히

# 安産·젖不足에

더욱 強化된 成分.

● 妊娠初期부터 ↓ 産前·産後 ↓ 授乳期까지 ↓



産前産後 養乳 龍乳劑

## 비다갈습

< 300T入 徳用瓶 >  
100錠入

効力 正確 三一 製藥